

2015. 8. 23

##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4장 1-5절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언뜻 보기에 이혼장만 주면 가볍게 이혼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냥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라는 명확한 조건이 없을 시에는 정당하게 이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되는 일」은 원래 「성기, 벌거벗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서 「저속, 무례, 상스러움, 외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23장 14절에서는 「불결한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맞이한 아내가, 바람이나 그런 종류의 몸가짐이 좋지 않은 행동, 또는 묵과 할 수 없는 저속한 일을 행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명확한 불륜일 경우에는, 이혼이라기 보다 사형에 상응하기 때문에, 불륜을 포함한 그 같은 유에 속하는 남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부정(不眞)」즉 「성적인 부정행위」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마태 19:9㉔)

이렇게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아내에게서 발견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해서 이혼이 허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 정식으로 사무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조건은,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한 이혼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륜」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원래는,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1-8)

계속해서 2절부터 4절에서는, 한층 더 이혼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에 의해서,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

그 재혼한 곳에서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재혼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입니다.

직역하면 「더럽혀진 후에」입니다만,

재혼한 상대가 불결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 남편한테 있어서는,

전 부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것이기에,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도록 허락되어지면,

합법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 이성과 관계를 갖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한 남자와 결혼했으면서, 여기 저기 남자들과 관계를 갖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적으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간음이 허락되는 것이 되기에,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그와 같은 이혼과 재혼이 일반적이며,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가증스러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피해야하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죄를 초래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번 이혼해서 재혼하면 다시 본래의 관계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재혼해서 전의 부인이 더 좋았다고 해도,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즉, 그런것을 각오하고 잘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혼을 하지않도록 하는 큰 방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 남편에게 두번 다시 속박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여성한테 있어서는 재혼생활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율법들은, 초혼도 재혼도,

무익하고 불법한 이혼과 재혼을 막아, 그들의 결혼생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부부의 연은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눠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반려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최선의 반려자로 믿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최후의 예언자인 말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말라기 2:15-16)

5절에서는, 가정 또는 부부의 소중함에 대해서, 병역과 관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5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즉 성전(聖戰)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신혼생활의 첫 1년간은 병역을 면제해줘

「어떠한 의무도 지게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부부생활은 성전(聖戰)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국가에 우선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년간, 병역과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남편은 무엇을 할까요?

「그는 일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신의 집을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모든것에서 자유롭게 되어 가정을 돌보는데 전념하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했습니다.

1년간, 매일, 낮에도, 밤에도 아내를 즐겁게 합니다.

뭐야 그런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전쟁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말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다름아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부부의 연은 존귀한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노력 또한, 마찬가지로 신성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